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설 맞이 '농지은행 사업' 집중 홍보 설 명절을 맞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20일(금) 16:37



© 문경시민신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이병탁)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위해 '농지은행 사업' 집중 홍보에 나섰다.

문경지사는 최근 지역 내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만 65세부터 84세 이하의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및 개인에게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 일선에서 물러나는 고령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돕는 동시에, 확보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공급되어 농촌의 세대교체를 돕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문경지사는 이 밖에도 부채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 과수원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높여주는 '과원규모화사업' 등 농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

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병탁 지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과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문경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url : http://www.mg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5&idx=73415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